



신라 상고 시기 '부인(夫人)' 칭호의 수용과 의미

The Reception of the "Bu'in(夫人)" Title in the Far Ancient Period of Shilla, and its Meaning

저자 이현주
(Authors) Lee, Hyun-ju

출처 [역사와현실](#) , (86), 2012.12, 175-212 (38 pages)
(Source) [YŎKSA WA HYŎNSIL : Quarterly Review of Korean History](#) , (86), 2012.12, 175-212 (38 pages)

발행처 [한국역사연구회](#)
(Publisher) The Organization Of Korean Historians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075641>

APA Style 이현주 (2012). 신라 상고 시기 '부인(夫人)' 칭호의 수용과 의미. *역사와현실*, (86), 175-212.

이용정보 삼성현역사문화관
(Accessed) 183.106.106.***
2021/07/17 11:51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신라 상고 시기 '부인(夫人)' 칭호의 수용과 의미

이 현 주*

머리말

- 여성 칭호의 초기 형태
- '부인' 칭호의 수용과 의미
 - '부인' 칭호의 수용 배경
 - '내례부인(內禮夫人)'의 직제적 성격
- '부인' 칭호와 역할의 변화

맺음말

머리말

역사적 자료의 부족은 여성사 연구에서의 한계로 가장 많이 논의된다. 양적인 면에서 사료 자체가 단편적이고 적다는 점, 질적인 면에서 서술 주체가 남성이기 때문에 편향된 시각에 의해 왜곡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 그것이다. 고대 여성에 대한 연구의 경우 이러한 한계는 더욱 분명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단편적인

*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박사수료

대표논저 : 2008 「新羅 上古期 王妃族의 등장과 추이」 『史林』 31 ; 2004 「新羅의 建國神話와 動物象徴」,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흔적들을 추적해 나가면 구체적인 실상이 드러나리라 생각한다.

한국 고대의 여성에 대한 연구는 두 가지 측면으로 이루어졌다. 하나는 왕실 여성에 대한 연구이다. 왕실 계보 연구에서 왕의 계보도에 포함된 왕실 여성들이 연구되었다.¹⁾ 신라의 갈문왕 연구에서도 갈문왕과 관련된 여성들에 대해 다루어진 바 있다.²⁾ 다른 하나는 고대라는 시대적 배경에서의 여성이다. 고대의 여성은 사제적 역할을 수행했었고, 그로 인해 다른 시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질 수 있었음이 밝혀졌다.³⁾ 또한 신라 상고 시기 왕실 여성의 종교적 역할에 따른 정치세력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왕비족’을 상정한 연구와⁴⁾ 신라와 고려 왕실의 칭호 변화를 고찰한 연구 역시 이루어졌다.⁵⁾ 기왕의 연구들을 통해 신라 상고 시기 왕실 여성의

-
- 1) 末松保和, 1954 「新羅上古世系考」 『新羅史の諸問題』, 東洋文庫; 李基東, 1972 「新羅 奈勿王系の 血緣意識」 『新羅骨制品社會와 花郎徒』, 一潮閣; 金哲堉, 1975 「新羅上古世系와 그 紀年」 『韓國古代社會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李鐘旭, 1980 『新羅上代王位繼承研究』, 嶺南大學校出版部
 - 2) 今西龍, 1922 「新羅葛文王考」 『藝文』 13-5; 1933 『新羅史研究』, 國書刊行會 재수록; 이기백, 1999(1974) 「新羅時代의 葛文王」 『新羅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河廷龍, 1994 「新羅上代葛文王研究」 『민족문화연구』 27; 안정희, 1996 「葛文王再考」 『韓國傳統文化研究』 11; 宣石悅, 2003 「麻立干時期的 王權과 葛文王」 『新羅文化』 22
 - 3) 崔淑卿·河炫綱, 1972 『韓國女性史(古代~朝鮮)』, 이화여대출판부; 姜芙卿, 1982 「韓國 古代社會의 女性-三國時代 女性の 社會活動과 그 地位를 중심으로-」 『淑大史論』 11·12합; 金杜珍, 1994 「韓國 古代 女性の 地位」 『한국사시민강좌』 15, 일조각; 전호태, 1997 「한국 고대의 여성」 『韓國古代史研究』 12; 나희라, 2003 『신라의 국가제사』, 지식산업사; 강영경, 2005 「신라 上代시기의 女司祭-女巫와 比丘尼의 역할을 중심으로-」 『여성과 역사』 2; 김선주, 2010 「신라의 알영 전승 의미와 시조묘」 『역사와 현실』 76; 김선주, 2011 「신라의 건국신화와 閼英」 『新羅史學報』 23
 - 4) 이현주, 2008 「新羅 上古期 王妃族의 등장과 추이」 『史林』 31
 - 5) 김창현, 2009 「신라왕실과 고려왕실의 칭호」 『韓國古代史研究』 55

존재 양상과 역할에 대한 이해는 깊어졌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왕실 여성은 다만 그들이 소속된 세력의 추이를 구명하는 것으로만 논의될 뿐이었다. 왕실 여성의 존재 양상 자체가 밝혀지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후자의 경우 여성의 역할과 지위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본 연구들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신라 상고 시기에 있어 왕실 여성의 지위와 역할의 변화라는 측면은 잘 찾아지지 않는다.

왕실 여성은 기본적으로 왕실의 일원으로서 지위와 역할이 규정되었다. 왕과의 관련 하에 왕모(王母), 왕비(王妃), 왕매(王妹), 왕녀(王女)로서 지위와 역할을 가졌던 것이다. 따라서 고대 왕실 여성의 지위는 왕권의 위상 변화에 따라 연동성을 가지고 변화되었다. 즉 신라의 왕호 및 왕권의 변화는 왕실 여성의 칭호와 지위의 변화를 야기했다. 칭호는 그 자체로 대상의 지위와 역할을 표상하므로 사회적 변화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⁶⁾ 신라 상고 시기의 여성 칭호 역시 단순한 존칭이 아닌 역할과 위상을 담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여성 칭호의 변화 배경과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왕실 여성의 지위와 역할의 변화를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신라 상고 시기 왕실 여성의 지위와 역할의 변화를 여성 칭호의 변화 추이를 고찰함으로써 살펴보고자 한다. 사료에 보이는 여성 칭호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식 칭호인 '부인' 칭호가 도입되는 기점을 중심으로 3기로 나누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중심으로 여성 칭호의 변화 배경과 의미에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부인' 칭호가 수용되기

6) 본고에서는 호칭과 칭호를 구분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호칭은 일반적으로 대상을 지칭하는 데 불과하다. 반면 칭호는 그 자체로 특정 대상의 지위와 위상을 표상할 뿐만 아니라 부여된 대상에게 특정한 역할을 기대한다. 즉 칭호는 자타 공인된 지위와 역할을 수반하는 것이다. 이처럼 칭호는 호칭과 달리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다. 여성의 지위를 연구할 때 칭호가 중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전의 여성 칭호의 초기 형태와 의미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부인’ 칭호의 수용 배경과 사제적 역할의 직제화 과정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여기서 사료에 거듭 나타나고 있는 ‘내례부인(內禮夫人)’이 가지는 칭호로서의 의미와 직제적 요소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마립간기 부인 칭호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칭호 변화의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여성 칭호의 고찰을 통해 왕실 여성의 존재 양상에 대한 이해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1. 여성 칭호의 초기 형태

‘부인(夫人)’은 사료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여성 칭호이다. 사료에서 부인의 칭호는 주로 왕실 여성의 존칭으로 쓰였다. 상고 시기의 자료가 왕계와 관련된 왕부(王父), 왕모(王母), 왕비(王妃) 순으로 기록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신라 초기 ‘부인’의 존칭은 최상층의 여성, 주로 왕실 여성에 한정되었을 것이라 여겨진다. ‘부인’ 칭호가 시기별로 용법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다음의 표는 신라 상고기 사료에 등장하는 여성 칭호들을 일괄한 것이다.

<표> 신라 상고기 왕실 여성 명칭 일람표

王代		三國史記				三國遺事	비고
		이름	이름+ 夫人	성씨+ 이름夫人	父名	이름夫人+성씨	
I	1	赫居世居西干	閼英(妻)			娥伊英·娥英	老嫗
	2	南解次次雄	阿老(妹)	閼英夫人(母)		閼英(母) 雲帝夫人(妻)	長女

			雲帝夫人(妻)				
3	儒理尼師今		雲帝夫人(母)		日知葛文王(妻)	雲帝(母) 辭要王之女金氏(妻)	王女
4	脫解尼師今		阿孝夫人(妻)		女國王(母)	積女國王之女(母) 阿老夫人(妻)	老嫗
5	婆婆尼師今			金氏史省夫人(妻)	許婁葛文王(妻)	辭要王之女(母) 史肖夫人(妻)	
6	祇摩尼師今		史省夫人(母)	金氏愛禮夫人(妻)	葛文王摩帝(妻)	史肖夫人(母) □禮夫人(愛禮)金氏(妻)	
7	逸聖尼師今			朴氏(妻)	支所禮王(妻)	□禮夫人(妻) □□禮夫人 伊刊生夫人(□□王夫人)朴氏(母)	
8	阿達羅尼師今			朴氏(母) 朴氏內禮夫人(妻)	支所禮王(母) 祇摩王(妻)		
9	伐休尼師今			金氏只珍內禮夫人(母)			
10	奈解尼師今		內禮夫人(母)	昔氏(妻)			
11	助賁尼師今		阿爾兮夫人(妻)	金氏玉帽夫人(母)	仇道葛文王(母) 奈解王(妻)		
12	沾解尼師今			金氏玉帽夫人(母)			
13	味鄒尼師今			朴氏(母) 昔氏光明夫人(妻)	葛文王伊染(母) 助賁王(妻)	生乎(述禮)夫人朴氏(母) 光明娘(妻)	
14	儒禮尼師今			朴氏(母)	葛文王奈音(母)	□召夫人朴氏(母)	

II

	15	基臨尼師今					阿爾兮夫人(母)	
	16	訖解尼師今		命元夫人 (母)		助 賁 王 (母)		
	17	奈勿尼師今			金氏休禮夫人 (母) 金氏(妻)	味 鄒 王 (妻)	休禮夫人金氏(母)	
	18	實聖尼師今		伊利夫人 (母)		阿 干 昔 登 保(母) 味 鄒 王 (妻)	禮生夫人昔氏(母) 阿留夫人(妻)	
III	19	訥祇麻立干		保反夫人 (母)		味 鄒 王 (母) 實 聖 王 (妻)	內禮希夫人金氏 (母)	國大夫人 美海公 夫人
	20	慈悲麻立干			金氏(母)	實 聖 王 (母) 舒 弗 邯 未 斯欣(妻)	阿老夫人(次老夫 人)(母) 巴胡葛文王(未叱 希·未欣角干)之 女(妻)	
	21	炤知麻立干		善兮夫人 (妻)	金氏(母)	舒 弗 邯 未 斯欣(母) 伊 伐 滄 乃 宿(妻)	未欣角干之女(母) 期寶葛文王之女 (妻)	宮主
	22	智證麻立干			金氏鳥生夫人 (母) 朴氏延帝夫人 (妻)	訥 祇 王 (母) 伊 滄 登 乾 (妻)	鳥生夫人(母) 迎帝夫人(妻)	

위의 표는 『삼국사기』 신라본기와 『삼국유사』 왕력편에서의 여성 칭호 들을 기록된 형식대로 분류한 것이다. 보다시피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기록은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유사하다. 『삼국유사』는 『삼국사기』의 기록을 보완한다는 취지에서 작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두 기록에서 여성 칭호의 변화 지점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분류하

면 크게 3기로 나뉘어진다.

우선 I기는 신라 시조인 박혁거세부터 4대왕인 탈해니사금까지이다. 이 시기는 각 성씨별 시조가 등장하는 시기로, 박혁거세를 비롯하여 탈해니사금 및 알지(閼智)가 나타나고 있다. 이 시기의 여성들 역시 ‘부인’ 칭호를 갖고 있다. 그러나 ‘부인’ 칭호로 일관되지 않고 단지 이름만으로 기록된 여성들이 보인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다음 II기는 5대 파사니사금부터 18대 실성니사금에 이르는 시기이다. 파사니사금때부터 여성 명칭이 기왕의 ‘ar’ 이름 대신 ‘성씨+이름+부인(夫人)’의 형식으로 정형화되어 기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유사』에서는 ‘이름+부인+성씨’의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어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사료상에서 나타나는 차이가 ‘이름+부인’의 앞과 뒤에 성씨를 붙이고 있음에 불과하다. 각 사료 내부에서 정형화된 규칙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형식으로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마지막으로 III기는 눌지마립간부터 지증마립간에 해당하는 시기이다.⁷⁾ 이 시기에는 일반적인 여성 칭호였던 ‘부인’ 이외에 다른 칭호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국대부인(國大夫人)’, ‘□□공부인(□□公夫人)’ 등의 칭호가 등장할 뿐만 아니라 ‘부인’과 다른 계열의 칭호인 궁주(宮主)가 등장하고 있다. 신라 상고 시기에 보이는 여성 칭호의 변화 양상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I기에 해당하는 왕은 1대인 박혁거세, 2대인 남해차차웅, 3대인 유리니사금, 4대인 탈해니사금이다. 왕의 대수로 치면 4대에 불과하지만, 이 시기에 보이는 왕호는 무려 3개이다. 혁거세거서간과 남해차차웅, 그리고 유리니사금과 탈해니사금 등 거서간, 차차웅, 니사금이 이 시기의 왕호이다. 거

7) 『三國遺事』에서는 나물마립간부터 마립간의 칭호로 기재되었는데 반해 『三國史記』에서는 눌지마립간부터 마립간의 칭호로 기록되어 있다. 이 두 기록 모두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본고에서는 『三國史記』의 기록을 따르고자 한다.

서간은 거슬한(居瑟邯)이라고도 하였는데,⁸⁾ 신라 시조인 혁거세로부터 비롯된 왕호이다.⁹⁾ 차차웅은 자충(慈充)이라고도 한다. 김대문(金大問)에 따르면, 차차웅은 무당을 이르는 말로, 귀신을 섬기고 제사를 숭상하는 자라 한다.¹⁰⁾ 니사금은 잇금을 일컫는다. 남해왕 사후 탈해와 유리(노례)가 왕위를 두고 떡을 물어 이가 많은 사람이 먼저 왕위에 오른 것에서 연유한 왕호이다.¹¹⁾ 즉 거서간은 신라 시조의 성스러움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차차웅은 ‘귀신을 섬기고 제사를 숭상하는 무당’, 그리고 니사금은 ‘이가 많은 성스럽고 지혜로운 사람’인 존장자를 의미하는 말이었는데, 이와 같은 말이 왕호로써 진화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I 기의 왕호는 거서간, 차차웅, 니사금 등의 신라 고유의 존칭이었다. 사료상에는 I 기에 중국식 ‘夫人’ 칭호가 일괄적으로 보이고 있다. 신라 고유의 존칭이 왕호였던 시기에 중국식 칭호가 여성 존칭으로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거서간, 차차웅, 니사금의 왕호와 아울러 사용되었던 여성 칭호로는 어떠한 것이 있었을까. 이 시기 사료에 나타나는 여성들은 주로 왕과 관련된 존재들이다. 우선 혁거세대에는 처인 알영(閼英)과 딸인 아로(阿老)가 있었다. 알영은 아이영(娥伊英) 또는 아영(娥英)이라고도 하는데,¹²⁾ 혁거세와 더불어 이성(二聖)으로서 숭앙받던 존재이다.¹³⁾ 아로는 남해왕대에 세워진 시조 혁거세의 묘에 지내는 제사의 주관

8) 『三國遺事』 기이편에 따르면, 혁거세의 位號를 居瑟邯(居西干)이라고 한 이유에 대해 스스로 ‘알지거서간’ 칭했기 때문이라 했다(『三國遺事』 권1, 紀異2 新羅始祖 赫居世王). 즉 혁거세의 일화로 인해 居西干이 王號가 되었던 것이다.

9) 『三國遺事』 왕력에 남해차차웅 역시 또는 居西干이라고도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三國遺事』 권1, 王曆1 第二南解王).

10) 『三國史記』 권1, 新羅本紀1 南解次次雄 ; 『三國遺事』 권1, 紀異2 第二南解王

11) 『三國史記』 권1, 新羅本紀1 儒理尼師今 ; 『三國遺事』 권1, 紀異2 第二南解王

12) 『三國遺事』 권1, 王曆篇

13) 『三國史記』 권1, 新羅本紀1 赫居世居西干 5년

자였다.¹⁴⁾ 다음으로 남해왕에게는 모인 알영, 처인 운제부인, 그리고 누이인 아로, 딸딸인 아로부인이 있었다.¹⁵⁾ 남해가 혁거세의 아들이므로, 알영과 아로는 남해의 모와 누이가 되었다. 처인 운제부인의 경우, 혹은 아로부인(阿婁夫人)이라고도 하는데,¹⁶⁾ 운제산성모(雲梯山聖母)였다.¹⁷⁾ 가뭄때 기원하면 응함이 있었다고 알려졌는데,¹⁸⁾ 후대에까지 성모로서 숭앙의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큰 딸 아로는 첫 석씨왕인 탈해와 혼인하였다.¹⁹⁾ 3대왕인 유리는 남해와 운제부인의 아들이었다. 남해와 운제부인에게서 이어진 신성성으로 말미암아 왕이 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유리의 처는 사요왕의 딸 김씨,²⁰⁾ 또는 일지갈문왕의 딸(박씨, 허루왕의 딸)이라고만²¹⁾ 되어 있다. 4대왕인 탈해의 처는 남해의 장녀인 아로부인이다. 『삼국사기』에는 이효부인(阿孝夫人),²²⁾ 『삼국유사』 왕력편에는 아로부인(阿老夫人)이라 하였으며,²³⁾ 『삼국유사』 기이편에는 아니부인(阿尼夫人)이라²⁴⁾ 기록되어 있다.

1기에 보이는 여성 칭호를 살펴보면 다음의 2가지 특징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부인' 칭호 없이 여성 이름만으로 일컬어지는 경우가 종종 보인다는 점이다. 특히 알영의 경우 『삼국유사』의 기록에서는 혁거세의 처는 물론이고, 남해의 모로 기록될 때마저도 부인의 칭호가 덧붙여지지 않고 있

14) 『三國史記』 권32, 雜志1 祭祀

15) 『三國遺事』 권1, 王曆篇 脫解尼叱今

16) 『三國史記』 권1, 新羅本紀1 南解次次雄 즉위조

17) 『三國遺事』 권1, 紀異 第二南解王

18) 『三國遺事』 권1, 紀異2 第二南解王

19) 『三國史記』 권1, 新羅本紀1 南解次次雄 5년

20) 『三國遺事』 권1, 王曆1 第三 弩禮 혹은 儒禮尼叱今

21) 『三國史記』 권1, 新羅本紀1 儒理尼師今

22) 『三國史記』 권1, 新羅本紀1 脫解尼師今 즉위조

23) 『三國遺事』 권1, 王曆篇 脫解尼叱今

24) 『三國遺事』 권1, 紀異2 第四脫解王

다. 『삼국사기』에서 역시 혁거세 관련 기록에서는 알영이라고만 기록되어 있고, 남해왕 즉위조에 모로서 기록되었을 때만 알영부인이라 적혀지고 있다. 또한 혁거세의 딸이자 남해왕의 누이인 아로 역시 부인 칭호 없이 기록되었다. 두 번째 1기에 나타나는 여성들의 이름이 거의 유사하다는 점이다. 혁거세의 처인 알영의 경우 아이영 또는 아영이라고도 하였다. 남해왕의 처인 운제부인의 경우 혹은 아루부인이라고도 하였다고 한다. 탈해의 처인 아효부인은 아로부인, 또는 아니부인이라 하였다. 이처럼 왕의 처, 즉 왕비의 칭호가 알영(아이영, 아영), 아루,²⁵⁾ 아효(아로, 아니)로 기록되어 있다. 즉 1기 왕비의 칭호가 ‘ar’계의 이름으로 지칭되었던 것이다.²⁶⁾

신라 초기의 왕비인 혁거세의 처인 알영과 남해의 처인 운제부인은 각각 성모로서 숭앙되었다. 알영은 혁거세와 더불어 성인이었으며,²⁷⁾ 서술성모(西述聖母) 또는 선도성모(仙桃聖母)와의²⁸⁾ 일화가 전해지고 있었다. 운제부인은 기우제를 지내면 효험을 보이는 운제산성모로²⁹⁾ 일컬어졌다. 초

25) 남해왕의 妻인 운제부인은 『三國遺事』에 細注로 “또는 雲梯라고도 한다. 지금 迎日縣의 서쪽에 雲梯山 聖母가 있어 가뭄때 기우하면 응험이 있다”라고 되어 있다. 이는 雲帝라는 이름이 후대에 운제산 성모로서 추앙받을 때 덧붙여졌을 가능성을 짐작케 한다. 『삼국사기』 細注에 “또는 阿婁夫人이라고도 하였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아루부인이 운제산의 성모가 됨에 따라 운제부인이라 전해지게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26) 백제에서도 왕과 왕비의 칭호가 고유어로 일컬어졌음을 알 수 있다. 『주서』 백제전에 따르면, 왕의 姓은 부여씨(夫餘氏)로 어라하(於羅瑕)라 부르며, 백성들은 건길지(健吉支)라고 부르는데, 이는 중국 말로 왕을 뜻하는 것이라 하였다. 또한 왕의 아내는 어루(於陸)이라 칭하는데, 중국 말로 왕비라는 뜻이라고 하였다(『周書』 권49, 列傳41 異域 上 百濟). 중국식 칭호인 왕과 왕비라는 칭호가 수용되기 이전에 이미 고유어로서 왕과 왕비를 부르는 칭호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7) 『三國史記』 권1, 新羅本紀1 혁거세거서간 5년, 38년, 남해차차웅 원년

28) 『三國遺事』 권1, 紀異 新羅 始祖 赫居世王

29) 『三國遺事』 권1, 紀異 第二南解王

기 왕비는 성모라 칭해질 정도로 신성시되는 존재였던 것이다. 초기 왕이 무적(巫的) 대상으로서 신성시되고 있었다는 점과 상통한다. 초기 신라왕은 왕호로도 알 수 있듯이 무적사제왕(巫的司祭王)이었다. 종교적 능력에 의해 왕으로서의 정당성과 권위를 인정받고 있었다. 왕의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가 종교적인 일이었다.³⁰⁾ 이처럼 종교적 능력과 역할이 중요시되는 것은 왕비 역시 마찬가지였다. 신라 초기 왕비는 무적(巫的) 존재로서 신성시되고 있었다. 이는 저마니사금이 태자일때 태자비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 후보자의 춤추는 모습을 보고 선택하였다는 일화³¹⁾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태자비의 선정 기준이 춤이었던 이유는 장차 수행하게 될 왕비 역할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였다. 여기서 왕비의 역할이란 사제적 직능이었고, 그 중요 요소인 춤에 능해야만 했던 것이다.³²⁾ 춤은 제의시에 엑스터시에 진입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였다. ‘무(巫)’라는 글자 역시 “여자인데, 무형(無形)을 섬기어 강신(降神)을 춤으로 표현하는 자를 일컫는다. (글자의 모양은) 사람이 양 소매를 들어 춤을 추는 것을 형상화한 것이다”라고 한다.³³⁾ 이처럼 초기 왕비는 왕과 더불어 사제적 직능을 기반으로 한 신성한 존재였다.

왕의 딸, 왕녀 역시 사제적 기능을 담당한 신성한 존재였다. 혁거세의 딸이자 남해왕의 누이인 아로, 유리왕대의 왕녀 2인, 남해의 딸이자 탈해의 처인 아호(아로, 아니)가 있다. 혁거세의 딸과 남해의 딸은 모두 ‘ar’계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유리의 딸인 왕녀 2인은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가배(嘉俳)를 주관하였던 것으로 보아³⁴⁾ 이들 역시 왕

30) 나희라, 2003 『신라의 국가제사』, 지식산업사, 110~117쪽

31) 『三國史記』 권1, 新羅本紀1 祇摩尼師今 즉위조

32) 이현주, 2008 앞의 논문, 118~119쪽

33) 『說文』, “女能事無形 而舞降神者也 象人兩袂舞形”

34) 『三國史記』 권1, 新羅本紀1 儒理尼師今 9년조

실의 일원으로서 사제적 직능을 행했던 것이라 여겨진다.³⁵⁾ 시조묘 제의의 주관자인 혁거세의 왕녀 아로, 탈해의 왕비가 된 남해의 왕녀 아효, 가배라는 축제적 성격의 제의를 주관했던 유리의 왕녀들로 보아 초기 신라의 왕녀들은 사제적 직능을 수행하는 ‘ar’계 이름의 소유자들이었을 것이라 여겨진다.

한편 이 I기에서 이들 외에 또한 주목되는 여성들이 있다. 혁거세의 배우자인 알영을 알영정(闕英井)에서 거두어 길렀던 노구(老媪)의 존재와³⁶⁾ 그리고 탈해를 거두어 길렀던 바닷가의 노모(老母)가³⁷⁾ 그들이다. 신라에서의 노구는 사제적 직능을 가진 존재였다.³⁸⁾ 알영정에서 알영을 거두어 기른 노구는 물론 탈해를 거두어 길렀던 노모 역시 그러한 존재들로 상정된다. 여기서 이들 노구가 발견하고 거두어 기른 아이가 알영과 탈해로서 신라의 신화적 존재들이라는 점이 주목된다.³⁹⁾ 즉 이들 노구는 알영과 탈해의 성스러움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탈해를 기

35) 유리왕의 王女 2人是 6부를 둘로 나누어 각 부의 여자들을 거느리고 한 달여간 길쌈을 하고 승패를 가른 후 온갖 놀이를 행하였다고 하였다. 집단노동을 필요로 하는 길쌈대회를 왕의 소속부(大部)에서 王女를 주축으로 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국가적 경쟁의례이자 경쟁과 화합을 통한 갈등 해소를 위한 고대적 축제였다 (이현주, 2008 앞의 논문, 114쪽).

36) 『三國史記』 권1, 新羅本紀1 赫居世居西干 5년

37) 『三國史記』 권1, 新羅本紀1 脫解尼師今 즉위조
『三國遺事』 권1, 紀異2 第四脫解王

38) 老嫗를 豫知와 占卜을 행하는 사만(Shaman)으로 이해하기도 한다(崔光植, 1981 「三國史記 所載 老嫗의 性格」 『史叢』 25, 9쪽).

39) 고구려에 시조인 주몽이 날랜 말과 둔한 말을 구별하여 날랜 말을 자신이 취함으로써 사냥의 능력을 보인 일화가 있었다(『三國史記』 권13, 高句麗本紀1 始祖 東明聖王 즉위조). 「東明王篇」에 인용된 『舊三國史』에 의하면 주몽의 어머니인 유화의 도움으로 주몽이 말을 구별할 수 있었는데, 유화 역시 이처럼 구별하는 능력을 가졌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른 노구는 탈해가 있는 궤가 실린 배를 발견하고, 그 궤를 열기 전 흥한지 길한지를 알 수 없어 하늘을 향해 서약을 하는 의식을 치루었다.⁴⁰⁾ 이들 노구의 사제적 성격을 알 수 있다. 또한 노모의 역할이 어린 아이를 발견하고, 잘 기름으로써 훌륭히 성장시키고 있다는 데에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즉 출산과 양육이라는 여성 행위의 본래적 의미에 신성성이 부가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료상 단순히 어미로서의 모가 아닌 ‘늙은 어미’인 노모 내지 노구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은 ‘경험이 많은 성숙되고 숙련된 어미’라는 것을 강조한 표현으로 생각된다. 여성만의 고유 노동인 출산과 양육 행위에 대한 신성성은 곧 자연의 생산력에 대한 숭배와 직결되었을 것이다. 여기서 혁거세의 해척지모(海尺之母)인 탈해 노모의 이름이 아진의선(阿珍義先)이라는 점⁴¹⁾ 주목된다. 사제적 직능을 가진 노구 아진(阿珍) 역시 기왕의 알영을 위시한 ‘ar’계 인물명에 포함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I기에서는 夫人 칭호가 아직 쓰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사료상 나타나는 ‘부인’ 칭호는 후대의 것이 소급되어 기록된 것으로, 당대에 사용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된다. 이 시기는 ‘부인’ 칭호가 아닌 ‘ar’계의 명칭 자체가 존칭으로써 특정 역할과 지위에 있는 인물들에게 쓰였을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초기 왕비의 ‘ar’계 이름은 왕비의 사제적 성격을 반영한 칭호였던 것이다. 초기 왕호가 거서간, 차차웅, 니사금으로 일컬어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40) 『三國遺事』 권1, 紀異2 第四脫解王

41) 탈해가 鷄林 동쪽 河西知村 阿珍浦(지금(고려)도 上西知村下西知村 이름이 있다)에 이르렀다. 그 때 갖가에 한 노파(一嫗)가 있었는데, 이름이 아진의선인 혁거세왕의 海尺之母라고 하였다(『三國遺事』 卷1, 紀異2 제4대 탈해왕). 여기서 아진포라는 지명과 아진의선이라는 老母의 이름이 같다는 점이 주목된다. 연고가 있는 지명에 따라 아진의선이라는 이름을 칭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아진의선에 관한 일화로 인해 지명이 아진포로 되었을 가능성 역시 있기 때문이다. 시기가 상고 시기라는 점, 또 일화가 석씨 시조인 탈해니사금의 등장을 알려주고 있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기왕에 관한 일화에 의해 지명이 붙여진 경우라 봐도 좋을 듯하다.

가지로 초기 왕비호는 알영을 위시한 ‘ar’계 칭호였을 것이다. I기에서는 알영, 아루, 아로 등 ‘ar’계 명칭 자체가 왕비 및 왕모에 대한 일반적인 존칭이었고, 이는 아마도 건국 신화에서의 알영으로부터 유래된 칭호일 것이라 생각된다. 즉 ‘ar’계 칭호는 알영을 비롯한 왕실 여성으로서 신성한 사제적 직능을 가진 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존칭이었을 것이다. 초기 신라에서는 왕비와 왕모가 사제로서 신성시되었으므로, 주로 이들의 칭호로 사용되었을 것이라 여겨진다.

2. ‘부인’ 칭호의 수용과 의미

1) ‘부인’ 칭호의 수용 배경

II기에 보이는 여성 칭호는 다음의 두 가지 특징을 보인다. 첫 번째 I기와 달리 한자식 이름과 ‘부인’ 칭호가 나타나고 있다. II기의 왕비의 이름을 살펴보면 유사한 이름들이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지마니사금의 처인 애례부인(愛禮夫人), 일성니사금의 처인 □례부인(□禮夫人), 아달라니사금의 처(妻)인 내례부인(內禮夫人), 벌휴니사금의 모인 지진내례부인(只珍內禮夫人), 나해니사금의 모인 내례부인(內禮夫人), 미추니사금의 모인 슬례부인(述禮夫人), 나물니사금의 모인 휴례부인(休禮夫人) 등의 이름들이 그것이다. I기에서는 ‘ar’계 이름 자체가 칭호였다. 그에 반해 II기에서는 夫人의 칭호가 일관되게 덧붙여져 있다. 뿐만 아니라 애례와 내례 등 한자식 표기를 지향하고 있다는 차이점을 가진다. 특히 미추의 처인 광명부인(光明夫人)은 광명랑(光明娘)이라 하여⁴²⁾ 광명이라는 한자식 이름을

42) 『三國遺事』 권1, 王曆1 第十三 味鄒尼叱今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혼인 전에 ‘랑(娘)’이라 했다가 혼인 후 왕비로서 ‘부인’의 칭호를 썼던 것이다. ‘랑’은 도화랑(桃花娘),⁴³⁾ 도유나랑(都唯那娘),⁴⁴⁾ 김춘추의 딸인 고타소랑(古陀炤娘),⁴⁵⁾ 귀승랑(貴勝娘)⁴⁶⁾ 등에서 보인다. 아가씨라는 의미의 ‘랑’은 이름 뒤에 붙는 칭호로, 주로 미혼의 여성에게 쓰였는데, 딸이라는 의미의 ‘여(女)’와 혼용되어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I기와 달리 II기는 한자식의 이름과 부인 칭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II기의 두 번째 특징은 ‘성씨+이름+부인, 그리고 왕비 부의 명칭’의 정형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II기에서 보이는 이름 표기의 정형성은 왕비의 출신이 왕과 다른 계열임을 명시적으로 보여준다. II기는 파사니사금부터 시작되는데, 이 시기는 신라의 고대국가 형성기이다.⁴⁷⁾ 파사니사금대에 왕의 군사통수권이 확립되고, 전쟁 수행 능력이 제고됨에 따라 신라의 공격전쟁이 본격화되었다.⁴⁸⁾ 신라는 주변 소국을 병합함과 동시에 국가의 지배체제도 정비하였다.⁴⁹⁾ 즉 II기는 신라가 영역의 확대, 그리고 확대된 영역을 지배하기 위해 체제를 정비한 시기였다. 이 시기에 주목되는 존재가 갈문왕이다. 왕비족으로서의 허루세력이 등장하는 것 역시 파사니사금대이다.⁵⁰⁾ 갈문왕으로 책봉 받는 대상의 자격이 시기별로 변화를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혁거세부터 일성까지는 왕비의 부가, 일성부터

43) 『三國遺事』 권1, 紀異2 桃花女 鼻荊郎

44) 『三國史記』 권40, 雜志9 職官 下

45) 『三國史記』 권41, 列傳1 金庾信 上

46) 『三國遺事』 권1, 王曆1 第四十一 憲德王

47) 千寬宇, 1989 『古朝鮮史·三韓史研究』, 一潮閣, 294~295쪽

48) 金瑛河, 2002 『韓國古代社會의 軍事와 政治』,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院, 79~82쪽

49) 김영하, 2002 앞의 책, 109~110쪽

50) 이현주, 2008 앞의 논문, 124~125쪽

실성까지는 왕의 부 또는 왕모의 부가 갈문왕으로 책봉되었다.⁵¹⁾ 사료에서 처음 등장하는 갈문왕인 일지갈문왕은 유리니사금 처의 부였는데, 그 세대에 혹은 박씨 허루왕의 딸이라고도 한다고 덧붙여져 있다.⁵²⁾ 이어 파사니사금의 처의 부가 허루갈문왕이었으며, 지마니사금의 처의 부는 갈문왕 마제였는데, 허루와 태자비의 자리를 놓고 경합을 벌인 적이 있다.⁵³⁾ 또한 일성니사금의 처의 부인 지소례왕의 경우, 허루갈문왕을 허루왕, 마제갈문왕을 마제국왕이라 하는 것으로 보아 갈문왕과 같은 용례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⁵⁴⁾ 이처럼 신라 초기인 II기 초기에 왕비의 부가 왕에 버금가는 존재인 갈문왕에 책봉되고 있다. 왕과 연합한 정치세력으로서의 왕비족의 존재를 알 수 있다.⁵⁵⁾ 파사니사금대를 기점으로 한 영토 확장은 정치 체제의 변화를 가져 왔다. 왕은 다른 정치세력과의 연합을 통해 대내외적인 국가체제를 확장하는 과정에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왕비의 소속 성씨와 부계를 명시하게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성씨와 한자식 명칭, 그리고 중국식 칭호인 ‘부인’의 칭호가 신라 초기부터 쓰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 하다. ‘부인’은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기혼 여성에 대한 존칭으로, 중국식 표현이다. 따라서 부인 칭호의 사용은 부분적일지라도 한식(漢式) 문화의 수용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중국 기록에서 부인이라는 칭호가 처음 등장한 것은전한(前漢) 무제(武帝)때(B.C.2C) 발견된 『주례(周禮)』라고도 불리는 『주관(周官)』에서이다. 『주관』에 따르면 부인(夫人)·빈(嬪)·세부(世婦)·여어(女御)의 지위가 있었으며, 이들 명칭과 직위는 한(漢)·진(晉) 이래 비록 완비된 형태는 아니나

51) 이기백, 1974 앞의 책, 8~11쪽, 14~15쪽

52) 『三國史記』 권1, 新羅本紀1, 유리니사금 즉위조

53) 『三國史記』 권1, 新羅本紀1 파사니사금 즉위조, 지마니사금 즉위조

54) 今西龍, 1933 앞의 책, 250쪽

55) 이기백, 1974 앞의 책, 8~11, 19~20쪽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⁵⁶⁾ 또한 성씨 자체도 한자식 표현으로, 신라에서 성씨의 사용은 비교적 후대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⁵⁷⁾ 중국식 성씨의 도입이 후대였으나 각 집단의 족단 의식에 의해 상고 시기로 소급되어 기록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지위와 신분을 나타내는 칭호로서의 부인이라는 존칭이 실제 사용 시기에 대해서 상세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사료상 나타나는 부인의 칭호는 신라 시조인 혁거세의 처이자 남해왕의 모인 알영에게서도 보인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처럼 왕의 칭호 역시 거서간과 차차웅, 니사금, 마립간으로 칭해지고 있었던 시기에 왕비와 부인 등의 칭호가 있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신라에서 중국식 왕호인 신라국왕(新羅國王)이 사용된 시기는 마립간기 이후이므로,⁵⁸⁾ 한화식 여성 존칭인 '부인'이 혁거세시기부터 쓰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칭호로서의 '부인' 역시 소급되어 덧붙여졌을 가능성이 있다. Ⅲ기인 마립간기에 '부인' 칭호가 새겨진 유물이 출토되고 있다. 황남대총 북분에서 '부인대(夫人帶)'가 새겨진 대금구(帶金具)가 출토되었는데, '부인대'라는 명문으로 인해 그 피장자는 여성으로 추정되고 있다.⁵⁹⁾ 황남대총은 적석목곽분이라는 묘제에서 표형분의 특징을 보인다. 적석목곽분은 4세기 전반에 출현하여 6세기 전반까지 조성된 마립간기의 묘제로서, 실제 그 축조 시점은 나물니사금대(356~401)에서 지증왕대(500~513)에 걸친 기간으로 보고 있다.⁶⁰⁾ 따라서 황남대총이 조성된 당시인 마립간기에 신라에서는 '부

56) 『唐六典』 권12, 內官宮官內侍省

57) 『北齊書』에 565년 金眞興책봉기사가 처음으로 나오는데, 이는 신라에서 한자식 성씨사용의 下限으로써 그 이전의 것은 계보에 따라 소급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또한 朴·昔 兩姓 역시 金姓과 더불어 혹은 뒤이은 시기인 6세기 중엽 및 후반무렵에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았다(이순근, 1980 「新羅時代 姓氏 取得과 그 意味」 『韓國史論』 6, 15~20쪽).

58) 『三國史記』 권4, 신라본기4 지증마립간 4년(503)

59) 金正基 外, 1985 『皇南大塚(北墳)發掘報告書』, 文化財研究所

인'이 최고위층의 칭호로서 쓰이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부인' 칭호가 마립간기에 이미 최고급 지배층의 여성 칭호로서 수용되어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외래 문화의 도입과 수용 및 정착의 단계는 그 시기가 각각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인' 칭호의 도입은 마립간기 이전에 이루어졌을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부인 칭호가 도입된 시기와 배경은 어떠한을까. 한(漢)문화가 한반도로 확산된 시기는 기원전 1세기 낙랑군을 비롯한 한사군(漢四郡)의 설치와 계기가 되어 이루어졌다. 1세기의 고분인 경남 창원 다호리(茶戶里)고분에서 문자생활을 시사하는 붓과 삭도(削刀)가 함께 출토되고 있기도 하다.⁶¹⁾ 또한 사료에서도 조선 유민이 산골짜기에 나뉘어 살며 6촌을 이루고 있었다고 하여,⁶²⁾ 한문화에 익숙하던 고조선 유민들의 영향을 짐작할 수 있다. 한나라때에 부여에서 쓰이던 '예왕지인(穰王之印)'이⁶³⁾ 남해차차웅대에 발견되었다는 기록 역시 보인다.⁶⁴⁾ 이처럼 조선 유민들의 파상적 유입으로 인한 한문화의 전래가 있었음은 고고학적 유물로도 입증된다. 신라에서도 비교적 이른 시기에 한문화를 접하고 있었던 것이다. 신라에서도 II기인 니사금 시기에 '부인' 칭호의 도입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부인' 칭호가 일반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문화의 도입과 수용 및 정착은 시기상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부인' 호칭의 도입 시기를 니사금기로 상정하더라도 칭호로서의 '부인' 수용은 마립간기에서야 이루어졌을 것이라 여겨진다. 즉 '부인' 칭호가 지위와 역할의 표상으로서 활용되어진 건 마립간기에 제도로서 정착되고 난 후에 비로소 가능했을 것이다.

60) 崔秉鉉, 1992 『新羅古墳研究』, 一志社

61) 李健茂, 1992 「茶戶里遺蹟出土 붓(筆)에 대하여」 『考古學誌』 4

62) 『三國史記』 권1, 新羅本紀1 赫居世居西干 즉위초

63) 『三國志』 권30, 魏書30 夫餘傳

64) 『三國史記』 권1, 新羅本紀1 남해차차웅 16년(19)

앞서 살펴 보았듯이 I기에 부인의 칭호가 아닌 ‘ar’계의 칭호가 사용되고 있었다. 그 대상은 왕비와 왕모, 왕녀, 왕매에 한정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II기는 신라가 소국을 벗어나 고대국가로서 형성되던 시기였다. 왕권의 강화와 역할의 변화가 야기되던 시기였다. 왕비 및 왕모의 지위 역시 이전보다 왕에게 종속된 지위를 가질 수 밖에 없었다. ‘부인’은 기혼 여성에 대한 존칭이다. I기에서는 ‘ar’계 칭호를 기혼과 미혼 여부를 가리지 않고, 여성 자신의 역할과 위상에 따라 쓸 수 있었다. II기에서 ‘부인’ 칭호의 사용은 기혼 여성, 특히 왕과 직결된 여성인 왕비 및 왕모에게만 한정된 것이었다.

2) ‘내례부인(內禮夫人)’의 직제적 성격

I기에서는 알영, 아리, 아루, 아로 등 ‘ar’계의 이름이 이름이자 칭호로 쓰이는데 반해 II기에서는 ‘부인’ 칭호와 아울러 한자식 이름이 많이 쓰이고 있다. II기의 한자식 이름을 보면, 애례, 내례, 지진내례, 술례, 휴례 등례로 끝나는 이름들이 유독 많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내례부인’은 사료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II기에 무려 3번이나 연속해서 나올 뿐만 아니라 III기에 눌지마립간의 모 역시 ‘내례부인’이라 나오고 있다. II기에서 나오는 ‘내례부인’의 의미와 성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기의 아로 등 ‘ar’계의 이름과 II기의 내례 등 ‘례’계열의 이름은 그 음운상 매우 유사하다. 내례에서 ‘내’를 훈독(訓讀)하여 아례(아로)로도 볼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⁶⁵⁾ 기왕에 ‘ar’계 명칭의 음운상 어의를 파악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⁶⁶⁾ ‘알(闕, ar)’의 어원에 대해 논의가 분분하

65) 나희라, 2003 앞의 책, 124쪽

66) 前間恭作, 1925 「新羅王之世次と其名について」 『東洋學報』 15-2 ; 末松保和,

다. 알(關)은 알천(關川)이라는 지명에서 나왔다고 보기도 하고, 알(關)과 동의어로 보기도 하였다. 또한 알(關)을 의미함과 동시에 곡류나 과실의 껍질을 탈곡한 알곡과도 의미가 통용된다고 보기도 하였다. 이러한 논의에 더하여 동사로서 ‘알다(知)’, ‘열다(開)’의 의미도 부가하기도 하였다.⁶⁷⁾ 이처럼 기왕에는 ‘알(關)’의 어원에 대해 ‘곡물의 알곡’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초기 신라에서 ‘곡령(穀靈)’은 인간의 출생, 성혼의 원리라고 믿어졌었다고 한다. 농경사회에서 사령자(司靈者)로서 의례를 행하는 왕과 왕비는 ‘곡물’을 뜻하는 ‘ar’에서 유래한 ‘ar’계의 이름을 갖게 된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이처럼 ‘ar’계의 이름은 왕모·왕매·왕비 뿐만 아니라 알지(關智) 등의 왕 역시 농경사회에서 사령자적 성격을 지닌 인물들에게 그 직능에 따라 붙여진 이름인 것으로 파악했었다.⁶⁸⁾ ‘ar’계 이름을 가진 초기 왕실 여성들 역시 곡령을 제사하는 사제적 직능에 따라 유사한 이름이 부여되었던 것으로 보았다.⁶⁹⁾ 왕과 왕비의 이름에 대한 초기 음운학적 연구는 신라 초기 기록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한 것이다. 역사시대가 아닌 신화시대에서의 공통된 음운을 갖는 왕과 왕비의 이름이 다수인 이유를 설명한 것이라는 한계를 가진다.⁷⁰⁾

1954 「新羅上古世系考」 『新羅史の諸問題』, 東洋文庫 ; 三品彰英, 1975 『古代祭政と穀靈信仰』, 平凡社. 이들 일본사학자들은 이 ‘ar’계 명칭에 대해 신라 초기 기록을 불신하는 입장에서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즉 奈勿 이전은 역사시대 아닌 전설시대라는 전제 하에 파악하고 있다. 전간공작의 경우 堯女 즉 堯의 娥皇과 女英에서 그 글자를 취해 만든 것이라 했고, 말송보화 역시 이 입장을 따르고 있다(末松保和, 1954 앞의 책, 81~82쪽, 97~98쪽).

67) 末松保和, 1954 앞의 책, 106~107쪽

68) 三品彰英, 1975 앞의 책, 323~324쪽

69) 초기에 ‘ar’계 이름이 王妃와 王妹 모두에게 있는 경우, 그들이 수행하는 왕실제사 내에서의 기능이 상통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기도 하였다. 즉 사제적 직과 지위에 때로는 왕비가, 때로는 왕매가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았다(三品彰英, 1975 앞의 책, 217~220쪽).

사료에 따르면, 알영의 경우 그가 발견된 알영정의 명칭을 따서 이름을 지었다고 하였다.⁷¹⁾ 알지는 우리말로 어린 아기(小兒)를 뜻한다고 하였다.⁷²⁾ 그 유래가 지역명 내지 일반명사인 '아기'가 고유명사화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아지'가 일반적으로 아기라는 말로 쓰이는 것은 김유신의 누이이자 김춘추의 처인 문희의 어린 시절 이름이 '아지(阿之)'였던 것에서도 알 수 있다.⁷³⁾ 'ar'계의 어원은 지명일수도, '아기'라는 일반명칭일 수도 있다. 다만 일반명사가 신성시됨에 따라 고유명사화되는 계기를 주목해야 할 것이다.⁷⁴⁾ 왕실 여성의 'ar'계 이름은 알영의 신성성을 계승하는 의미였을 것이라 생각한다. 'ar'계 이름이 왕과 왕비, 왕모의 이름으로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ar' 접두어에 담긴 신성성에 기인한 것이었다.

II기에 등장하는 '레'계열의 여성 이름들 역시 'ar'계열과 음운상 유사하므로 동일한 계열의 이름으로 파악하였다.⁷⁵⁾ 신라 초기 기록에서의 사회적 성격과 변화에 주목하여 왕 및 왕비 이름이 내포하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I기의 'ar'계 여성들과 II기의 '내레부인'의 차이와 변화가 주목된다.

70) 김철준은 초기 신라의 기록을 긍정하는 입장에서 초기 왕과 왕비 이름에 대한 연구를 한 바 있다. 공통된 이름이 나오는 것에 대해 허구적 사실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신화의 재생산'으로 파악해야 하며, '재생산된 신화'는 그 자체로 설명하는 실체가 따로 있는 것이기에 역사적 사실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았다(1990 앞의 책, 188~189쪽).

71) 『三國史記』 권1, 新羅本紀1 赫居世居西干 5년 ; 『三國遺事』 권1, 紀異2, 新羅始祖赫居世王

72) 『三國遺事』 권1, 紀異2 金闕智 脫解王代

73) 『三國遺事』 권1, 紀異2, 金庚信

74) 또한 신성성을 내포한 고유 명사였던 闕英, 闕智가 그 신성성이 탈각되고 일반 명사화되는 양상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75) 未松保和, 1954 앞의 책, 80~93쪽 ; 김철준, 1990 앞의 책, 174쪽 ; 나희라, 2003 앞의 책, 124쪽

II기의 아달라니사금의 처, 벌휴니사금의 모, 그리고 나해니사금의 모, 눌지마립간의 모가 내례(內禮)라는 동일한 이름을 쓰고 있다. 이 중 눌지마립간의 모인 내례만이 시간적 격차를 가지고 있고, 아달라의 처, 벌휴의 모, 나해의 모는 각 왕대가 각각 8대, 9대, 10대로 연이어 나타난다. 기왕의 연구에서는 특정 인물로서 ‘내례부인’ 자체에 주목하지는 않았다. 단지 그가 속한 집단 내지 정치세력에만 주의를 기울였을 뿐이다. ‘내례부인’은 그 소속 집단에 따라 동일인물 내지 동명이인으로서 파악되었다. 그러나 이들 내례부인을 모두 동일인물로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아달라의 처인 내례부인은 박씨이고, 벌휴의 모는 김씨로, 우선 양자 간의 성이 다르다. 또한 벌휴와 나해는 조손의 관계이므로, 양자의 모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신라 상고기 왕계는 아달라니사금을 끝으로 박씨왕계에서 석씨왕계로 넘어 가고 있다. 이처럼 단절적인 왕계 변환의 중심에 공통적으로 ‘내례부인’의 존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벌휴의 모(母)인 김씨 지진내례부인이 주목된다. ‘김씨+지진+내례부인’이라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소속이 김씨 집단임을 알 수 있다. ‘내례부인’ 앞에 붙은 ‘지진’이 원래 명칭이고, ‘내례부인’은 후에 덧붙여졌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한기부 출신의 왕비였던 과사니사금의 처인 사성부인과⁷⁶⁾ 지마니사금의 처인 애례부인⁷⁷⁾ 모두 성이 김씨였다. 벌휴의 모 역시 김씨인 것이다. 첫 석씨왕인 벌휴의 왕권의 정당성을 왕비족단의 일원이었던 모에 의해 지지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벌휴가 왕위에 오른 후, 왕모가 된 김씨 지진에게 ‘내례부인’의 칭호가 덧붙여졌던 것이다. 벌휴 이후 즉위하는 나해의 모 역시 ‘내례부인’이었던 것 역시 내례가 특정 인물의 고유명칭이 아니라 역할에 따른 칭호였을 것이라 여겨진다. 즉 ‘내례부인’이 점차 직제적 성격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I기의 ‘ar’계 여성들의 신성성

76) 『三國史記』 권1, 新羅本紀1 婆娑尼師今 즉위조

77) 『三國史記』 권1, 新羅本紀1 祇摩尼師今 즉위조

이 점차 희미해져가고, 그 사제적 직능만이 남아 ‘예(禮)’계열의 칭호로 계승되었던 것이다. 왕비 내지 왕모로서 사제적 직능을 수행하는 자가 ‘내례부인’으로서의 칭호와 지위를 가졌을 것이다.

요컨대 I기 ‘ar’계 여성들은 사제적 직능자일 뿐만 아니라 그들 존재 자체가 숭앙의 대상이었다. 남해가 대표적인 경우로, 혁거세와 더불어 신화적 존재인 모인 알영은 물론 처 역시 운제산의 성모였다. 그의 누이인 아로는 시조묘제사의 주재자였으며, 딸인 아효는 석씨계 시조인 탈해의 처였다. 뿐만 아니라 본인 역시 신라 건국시조인 혁거세의 아들이로서 사제왕적 성격을 지닌 존재였다. 왕을 비롯한 왕부, 왕모, 왕비, 왕매, 왕녀 모두 사제적 직능을 가진 신성가족으로서 여겨졌던 것이다. 이처럼 초기 신라에서는 왕과 왕비, 왕매, 왕녀, 왕모 등 왕을 중심으로 한 왕실 일원 자체가 신성화됨으로써 그 권위가 정당화되었다. 그 기원은 신라 건국 시조로서 이성으로 숭앙되었던 혁거세와 알영이었을 것이다. 이처럼 신성가족의 일원, 내지는 신성의 계승자로서 가지게 된 사제적 직능이 I기 ‘ar’계 여성들의 특징이라 생각된다.

반면 II기의 ‘례’계열의 여성들에게서는 신성화된 사제적 직능의 보유자로서의 모습이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I기에서 일군의 신성 가족으로서의 집단이 존재했다고 한다면, 이 ‘례’계열의 여성들에게서는 이러한 집단이 아닌 특정 역할을 가진 개인만이 주목될 뿐이다. 게다가 석씨왕계에서는 왕비의 기록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⁷⁸⁾ 이는 II기 ‘례’계열 여성들의 역할에 변화가 있음을 짐작케 한다. 즉 신성한 존재보다는 사제적 직능 자체가 강조되기 시작했던 것이다.⁷⁹⁾ II기에서의 ‘내례부인’은 사제적 직능이 직제화

78) 김선주, 2010 『『三國史記』를 통해 본 고대 삼국의 왕비 비교』 『페미니즘연구』 10, 5쪽

79) 나희라는 초기 신라에서 왕의 사제권의 일부를 왕실 여성이 분담받은 것이며, 이에 종교 전문가로서의 ‘ar’계 왕실 여성이 왕실 최고 임무의 하나인 종교적 임무를

되었음을 보여준다. 왕비이든 왕모이든 사제적 직능을 담당한 인물이 '내례부인'의 칭호를 칭했던 것이다.

3. '夫人' 칭호와 역할의 변화

Ⅲ기는 눌지마립간부터 지증마립간에 해당하는 시기로 이른바 마립간에 해당한다. 김대문에 의하면, 마립간은 방언으로 말뚝을 일컫는 말이라 하였다. 말뚝은 위계에 따라 설치되었는데, 왕의 말뚝이 주(主)가 되고, 신하의 말뚝은 그 아래 배열되었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왕의 명칭으로 삼았다고 한다.⁸⁰⁾ 정치 사회적으로 서열의 위계화가 강조되었던 시기로 여겨진다.

이 시기에는 '부인' 이외의 칭호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국대(國大)', '□□공(□□公)' 등의 수식이 더해진 '부인' 칭호와 그와 다른 계열의 칭호인 궁주(宮主)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기왕의 왕비 및 왕모에 한정되어 나타나던 부인 칭호가 왕비·왕모가 아닌 여성에게도 일컬어지고 있다는 점 역시 주목된다. 또한 Ⅲ기에도 내례부인이 등장하고 있다. Ⅲ기에서의 부인 칭호의 변화와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국대부인'과 '□□공부인'은 기왕의 '부인' 칭호에 수식어가 덧붙여져 있다. 이는 눌지마립간에 박제상의 처와 딸에게 제수되었던 칭호이다. 눌지마립간은 즉위한 이후 실성마립간 당시 고구려와 왜에 인질로 보내졌던 나물왕의 두 동생인 복호와 미사흔을 신라로 데려오고자 했다. 박제상은 그 과업을 달성했고, 이에 눌지마립간이 그 공로를 치하하였다. 포

수행한 것이라 이해하고 있다(나희라, 2003 앞의 책, 119~130쪽). Ⅱ기에서 왕실 여성의 사제적 직능이 전문화되는 경향을 찾아 볼 수 있다.

80) 『三國史記』 권3, 新羅本紀3 訥祗麻立干 즉위조

상 방법에 대한 기록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삼국사기』에서는 죽은 박제상에게 대아찬을 추증하여 주고, 그 가족에게 후히 물품을 내렸으며, 아울러 미사흔으로 하여금 제상의 둘째 딸을 맞아 아내로 삼게 하였다고 한다.⁸¹⁾ 『삼국유사』에서는 박제상이 대아찬으로 추증되었다는 기사가 빠지고, 대신 박제상의 공로를 치하하여 그의 아내와 딸을 책봉하여 아내는 국대부인으로, 딸은 미해공부인으로 삼았다고 한다.⁸²⁾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국대부인과 미해공부인이라는 칭호가 모두 남편의 신분에 상응하는 위계적 직제라는 점이다.

이러한 관념은 외명부(外命婦)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이 시기에 그러한 직제가 완비되어있었는지는 의문이다. 또한 이 용어의 개념과 용도가 신라 시대 당시의 것인지 『삼국유사』가 기술된 시점인 고려시대의 것인지도 또한 염두해 두어야 한다. 『고려사』 백관지 내직조에 문종(1047~1083)때 내직제 정비에 관한 기록 다음에 세주로, 외명부는 공주(公主), 대장공주(大長公主)가 정1품이었고, 국대부인(國大夫人)은 정3품이며, 군대부인(郡大夫人)과 군군(郡君)은 정4품이고, 현군(縣君)은 정6품이었다는 기록이 적혀 있다.⁸³⁾ 여기에 외명부로서 정3품 국대부인이라는 명칭이 등장한다. 고려의 문종대 내직제 정비가 비록 이전의 제도를 확정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감안하더라도 외명부적 직제는 부인 계열의 여타 존칭에 비해 비교적 늦게 나타난 것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놀지마렵간 당시 국대부인이 외명부의 직제로 파악하기는 다소 무리다.

국대부인이라는 칭호를 비록 제도적 속성을 가진 직제로서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이 존칭의 동기가 다름 아닌 박제상의 공로에 따라 주어진 것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박제상 처에 대한 특별 예우로서 일반 '부인' 칭

81) 『三國史記』 권45, 列傳 5 朴堤上

82) 『三國遺事』 卷1, 紀異2 奈勿王 金堤上

83) 『高麗史』 권77, 志31 百官2 內職

호와의 차별성에 중점을 둔 칭호라 보인다.

사실 박제상의 처는 실성왕의 딸로서 이미 왕실여성의 일원이었다. 사료 상에서 실성왕의 딸이 2명 등장한다. 그 하나는 놀지의 처이자 자비의 모인 아로(차로)부인이고, 다른 하나는 박제상의 처인 치술신모(鷄述神母)이다. 『삼국유사』 왕력에 실성이 치술의 부라고 적시되어 있고,⁸⁴⁾ 이 치술이 박제상의 처라는 것이 『삼국유사』 기이편에 나오고 있다.⁸⁵⁾ 박제상의 처인 치술신모는 실성왕의 딸로서 왕녀였다. 즉 실성왕의 두 딸은 왕녀로서 하나는 왕비가 되고, 하나는 신모가 된 것이다. 따라서 박제상의 처의 ‘국대부인’의 칭호는 왕녀인 치술에게 남편의 공을 치하하여 포상하는 의미로 ‘국대’라는 수식어를 덧붙여 내려준 것이다. 여기서 ‘국대부인’은 국(國)의 대부인(大夫人)이라는 의미였을 것이라 생각된다.⁸⁶⁾

또한 박제상의 딸로서 미해공의 처가 된 박제상의 딸 역시 미해공부인이라 일컬어지고 있는데,⁸⁷⁾ 박제상의 딸인 경우, 왕녀였던 그의 모와 달리 왕실 직계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왕제(王弟)인 미해공의 처로 삼아준 것 자체가 포상일 수 있었다. 미해공의 처가 됨으로써 ‘□□부인’이라는

84) 『三國遺事』 권1, 王曆 1 實聖麻立干

85) 『三國遺事』 권1, 紀異 2 奈勿王 金堤上

86) 백제 무령왕릉에서 ‘大夫人’이라 새겨진 팔찌 유물이 출토된 바 있다. 또한 고구려 안원왕 시기에 있었던 正夫人·中夫人·小夫人의 존재가 사료에서 확인된다(『日本書紀』 권19, 흠명기 7년 是歲條). 이로 보아 ‘夫人’ 또는 ‘大夫人’ 칭호가 삼국에서 사용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87) 미해공부인의 칭호를 ‘미해공의 부인’ 내지 ‘미해공의 공부인’이라 볼 여지가 있다. 후자의 경우 왕공후제도의 성립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칭호이다. 왕공후의 제도는 중국의 漢代에 확립되어 후대로 이어져 온 제도이고, 또한 백제의 경우 王·侯號制의 성립 시기를 근초고왕 대, 적어도 개로왕대로 보고 있다(盧重國, 2012 「百濟의 王·侯號, 將軍號制와 그 運營」 『百濟研究』 55, 232쪽). 신라에서는 제도로서의 왕공후의 칭호를 살펴볼 수는 없으나, 마립간기의 대외관계로 보아 일반 夫人 칭호와 구별되는 美海公夫人이라는 칭호 자체를 부인할 필요는 없다.

칭호와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들 국대부인이나 미해공부인은 이전의 부인 칭호와는 달리 '국대'와 '미해공'으로 수식되어 있는데, 그 칭호의 대상이 왕비나 왕모가 아니라는 점, 또한 남편의 지위에 따라 부여된 칭호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이전에는 '부인' 칭호가 왕비 및 왕모에 한정되었던 것에 반해 대상이 보다 넓은 범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여 준다. 또한 남편의 지위를 전제로 한 칭호인 '부인'이 중국적 용법 그대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른바 사금갑(射琴匣)설화인 소지마립간대의 일화에서 궁주(宮主)라는 칭호가 보인다. 사금갑 설화는 소지왕이 천천정(天泉亭)에 행차하였을 때, 못 속에서 한 노옹(老翁)이 나와 글을 주었고, 일관(日官)의 풀이에 따라 그 글에 적힌 바를 행하여서 거문고갑을 활로 쏘았는데, 그 거문고갑 안에서 몰래 통정하고 있던[潛通而所奸]하고 있던 내전(內殿)의 분수승(焚修僧)과 궁주가 발각되고 처형된 사건을 담은 일화이다.⁸⁸⁾ 여기서 '궁주'가 지칭하는 대상은 누구인가. 기왕의 연구에서는 궁주에 대해 왕비 내지는 후비에 준하는 신분의 여인⁸⁹⁾ 또는 전 왕실의 직계녀로 파악하였다.⁹⁰⁾ 혹은 『동사강목』에 의거하여⁹¹⁾ 이 궁주를 이찬 내숙의 딸이자 소지왕의 비인 선혜부인으로 보기도 하였다.⁹²⁾ 궁주는 문자 그대로 궁의 소유

88) 『三國遺事』 권1, 紀異1 射琴匣

89) 辛鐘遠, 1987 「新羅 五臺山史蹟과 聖德王의 卽位背景」 『崔永禧先生華甲紀念 韓國史學論叢』, 探求堂, 109쪽; 金台植, 2003 「射琴匣 설화의 역사적 이해」 『민속학연구』 12, 국립민속박물관, 117~122쪽

90) 魏英은 초전불교 설화에 보이는 公主·王女·宮主를 모두 국왕의 直系女로 간주하고, 이에 射琴匣 설화에서의 궁주는 전왕실의 여성으로 불교를 신봉했던 인물로 파악한 바 있다(魏英, 2002 「신라 初傳佛敎의 展開過程 檢討」 『新羅文化』 20, 116쪽).

91) 『東史綱目』 권二 下, 戊辰條, “鷄林誅其妃善兮夫人 妃與僧潛通故也”

92) 김태식, 2003 앞의 논문, 117~122쪽; 채미하, 2004 「新羅의 神宮 祭祀」 『전통문화논총』 2, 50~51쪽; 張彰恩, 2006 『新羅 上古期 高句麗 關係와 政治勢力 研究』,

주를 뜻한다. 『고려사』에서 궁주의 칭호가 많이 보인다. 원주(院主)나 궁주는 왕후(王后)·제비(諸妃)·궁인(宮人)의 체계와 달리 그 양상이 직제별로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별칭으로서 주로 경제적 혜택과 관련된 호칭이었다고 한다.⁹³⁾ 신라에서 궁주의 칭호가 많이 보이지는 않는다. 사금갑조에서 내전분수승(內殿焚修僧)과의 일화를 볼 때 내전 내, 또는 내전을 출입할 수 있는 신분의 여성이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이 외에 궁주의 칭호는 미추왕의 딸인 성국공주(成國公主)가⁹⁴⁾ 『해동고승전』에서는 성국공주로⁹⁵⁾ 나오고 있다. 요석궁의 공주⁹⁶⁾ 역시 궁주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효소왕대의 부례랑(夫禮郎)의 일화에서 부례랑의 어머니를 사랑부 경정궁주(鏡井宮主)로 삼았다는 기록에서도 나온다.⁹⁷⁾ 전자의 경우, 공주가 궁주이기도 했던 예이고, 후자의 경우, 부례랑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하여 그 모에게 주어진 칭호이다. 경정궁이라는 경제적 포상과 아울러 수여된 칭호였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신라에서도 궁주는 궁의 소유주라는 경제적 의미가 보다 강조된 칭호였을 것이라 생각된다. 왕비 외에 궁의 소유자인 궁주의 칭호를 가질 수 있는 왕실 여성으로는 왕모와 왕비, 왕녀 그리고 왕매 등이 있다. 즉 궁주의 칭호는 최고위층의 기혼 여성에 대한 칭호인 부인과는 달리 기혼 여부와 관련 없이 궁을 소유할 수 있을 정도의 여력을 가진 여성에 대한 존칭이었던 것이다.⁹⁸⁾ 이는 천천정과 노옹의 존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24~126쪽

93) 이정관, 1996 「高麗 后妃의 號稱에 관한 考察」 『典農史論』 2, 164쪽

94) 『三國遺事』 권3, 興法 阿道基羅

95) 『海東高僧傳』 권1, 流通1-1 阿道傳

96) 『三國遺事』 권4, 義解篇 元曉不羈

97) 『三國遺事』 권3, 제4 塔像篇 栢栗寺條

98) 2009년 5월에 발견된 <포항중성리신라비>에서의 ‘豆智 沙干支宮’과 ‘日夫智宮’라고 표기된 인물들이 주목된다. 이들의 실체에 대해 논의가 분분하다. 하일식은 ‘宮’을

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 『삼국사기』 직관지 중에 청연궁전(靑淵宮典)과 병촌궁전(屏村宮典)이 있는데, 경덕왕이 각각 조추정(造秋亭)과 현룡정(玄龍亭)으로 개칭을 하고 있어 궁(宮)과 정(亭)이 호환되어 쓰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연궁전과 병촌궁전의 관리를 담당한 관직으로 대사(大舍) 2명, 사(史) 2명, 궁옹(宮翁) 1명이 있었다고 하였는데,⁹⁹⁾ 여기서 궁옹의 존재가 주목된다. 천천정과 그 관리로서의 노옹으로서의 존재, 요석궁의 궁리(宮吏)¹⁰⁰⁾ 그리고 궁의 주인인 궁주 등의 모습을 통해 후대에 궁전(宮典)과 궁옹(宮翁)이라는 관직(官職)으로 제도화되어 가는 과정을 유추할 수 있다. 이처럼 경제적 의미와 관련된 칭호인 궁주의 존재는 III기 왕실 여성 칭호와 지위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와 같은 변화를 야기한 요인을 무엇일까. 나물니사금부터 실성니사금을 거쳐 눌지마립간에 이르는 시기는 정국이 불안정한 시기였다. 대외적으로 신라는 고구려에 종속되어 있던 시기였다. 나물니사금 22년(377) 봄에 고구려 사신과 더불어 입조(入朝)하였으며,¹⁰¹⁾ 26년(381)에 전진(前秦)과 교류한 기록이 남아 있다.¹⁰²⁾ 신라는 중국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 전진과의 통교는 고구려의 주선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당시 신라는 고구려에게 간섭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 놓여 있었다.¹⁰³⁾

후대의 '宅'과 같은 용법으로 보아, 이들을 '집'이라는 건축물에 누대에 걸쳐 살고 있는 귀족 가문의 대표자, 또는 그 재산을 관리하는 조직으로 보았다(하일식, 2009 「포항중성리신라비와 신라 관등제」 『한국고대사연구』 56, 187~188쪽). 금석문에서도 이 시기 궁과 궁주의 존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99) 『三國史記』 권39, 職官 中 靑淵宮典

100) 『三國遺事』 권4, 義解篇 元曉不羈

101) 『資治通鑑』 권104, 晉紀26 孝武帝 太元 2年

102) 『三國史記』 권3, 新羅本紀3 奈勿尼師今 26年

『資治通鑑』 권104, 晉紀26 孝武帝 太元 6年

103) 김영하, 2012 「廣開土大王陵碑의 정복기사해석」 『韓國古代史研究』 66, 213~214 쪽

『광개토대왕릉비』에 따르면, 399년 나물니사금의 구원 요청과 400년 광개토대왕의 원군 파견으로 인해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는 기왕의 복속 관계에서 조공관계로 더욱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¹⁰⁴⁾ 이와 같은 고구려와의 관계는 국내 정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당시 신라는 왕위계승권을 둘러싸고 나물계와 실성계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었던 시기였다. 실성은 나물 및 그 직계세력과 정치적으로 대립했던 정국 구도에서 고구려 세력을 배경으로 즉위할 수 있었으나, 그들을 완전히 제압하지는 못했다.¹⁰⁵⁾ 실성에 이어 즉위한 나물의 아들인 눌지 역시 고구려 군사의 지지를 배경으로 즉위할 정도로 이 시기 고구려가 신라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강했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신라에 미치는 고구려의 영향은 단순히 군사력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신라는 고구려를 통해 국제 정세 및 문화를 접하였고, 그로 인해 체제 변화가 야기되었으리라 짐작된다. 고구려를 통한 한문화의 수용은 신라 내부의 위계적 질서를 정립하는 데에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고구려에서는 『남제서』에서 처음 ‘부인’ 칭호의 사용례를 유추할 수 있는 근거가 찾아진다. 『남제서』에 고구려에 『예기』를 포함한 오경(五經)이 있음이 처음 기록되어 있다.¹⁰⁶⁾ 이후 당대에 기술된 『주서』, 『북사』에서¹⁰⁷⁾ 역시 고구려에 오경을 비롯한 여러 서적들이 있었다고 기록하였다. 또한 후진(後晉)시기에 씌어진 『구당서』에서는 고구려뿐 만 아니라 백제에도 오경이 있었다고 하였다.¹⁰⁸⁾ 주례가 실린 『예기』가 고구려에 남제(南齊) 시기

104) 김영하, 2012 앞의 논문, 241~242쪽

105) 장창은, 2008 『신라 상고기 정치변동과 고구려 관계』, 신서원, 96~98쪽

106) 『南齊書』 권58, 列傳39 高麗國, “知讀五經”

107) 『周書』 권49, 列傳41 異域上 高麗, “書籍有五經三史三國志晉陽秋”; 『北史』 권94, 列傳82 高句麗, “書有五經三史三國志晉陽秋”

108) 『舊唐書』 권199상, 列傳149上 高麗, “其書有五經及史記漢書范曄後漢書三國志孫盛晉春秋玉篇字統字林 又有文選 尤愛重之”; 『舊唐書』 권199상, 列傳149上 百濟

(479~502)에 이미 있었던 것이다. 고구려 장수왕 54년(466)에는 북위(北魏)와의 관계에서 육궁(六宮)을 채우라는 중국의 요구를 받은 사례 등이¹⁰⁹⁾ 보인다. 육궁은 천자를 모시는 황후(皇后)와 비빈(妃嬪)이 거처하는 궁으로, 황후와 비빈 자체를 일컫기도 한다. 고구려에서 육궁에 대한 이해가 이미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고구려에서는 이른 시기부터 중국과 같은 의미로서 부인 등의 칭호를 사용하고 있었을 것이다. 실제 고구려에서 부인 칭호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중천왕 4년(251)의 관나부인(貫那夫人)이¹¹⁰⁾ 처음이기는 하나, 왕후(王后)는 민중왕 5년(48)부터, 왕태후(王太后)는 태조대왕 즉위년(53)부터 소후(少后)는 산상왕 7년(203)부터 나오고 있다. 이러한 용어가 쓰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존칭으로서의 부인 역시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쓰이고 있었으리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고구려 유리명왕 31년(12)에 한(漢)의 왕망(王莽)과 고구려 군사 징발을 둘러싼 갈등이 나오는데,¹¹¹⁾ 이는 고구려와 한과의 밀접한 관계를 알려준다. 따라서 한과 밀접한 교류를 가졌던 고구려에서는 후비(后妃)에 대한 존칭으로서의 부인은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사용되었으리라 생각된다. 신라 마립간기에 보이는 여성 칭호인 국대부인, □□공부인 및 궁주 등은 그 자체로 지위와 위상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칭호가 왕비와 王母 이외의 여성에게 지위 및 위계적 질서의 표상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마립간기 여성 칭호의 변화는 대외적으로 고구려를 통한 중국 문화의 영향, 대내적으로 서열의 위계화 경향에 따른 것이었다.

‘내레부인’이 II기에 이어 다시 등장하고 있다. 내물니사금의 처이자 늘

國, “其書籍有五經子史”

109) 『三國史記』 권18, 高句麗本紀6 長壽王 54년; 『魏書』 권100, 列傳88 高句麗, “後文明太后以顯祖六宮未備 敕璉令薦其女”

110) 『三國史記』 권17, 高句麗本紀5 中川王 4년

111) 『三國史記』 권13, 高句麗本紀1, 瑠璃明王 31년

지마립간의 모는 보반부인(保反夫人)인데, 『삼국사기』 세주에 ‘내례길포(內禮吉佈)’라고 하였고,¹¹²⁾ 『삼국유사』에 ‘내례희부인(內禮希夫人)’이라고 하였다.¹¹³⁾ 보반부인이라는 칭호 외에 내례길포 또는 내례희부인이라 칭해졌던 것이다. II기에서의 내례부인의 직제적 성격에 따른 것이라 생각된다. 즉 보반부인이라는 본래의 고유 명칭과 왕비 및 왕모라는 지위에 따른 내례희부인이라는 칭호 양자 모두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실성의 딸이자 눌지의 처의 칭호가 아류부인(阿留夫人)이었다.¹¹⁴⁾ 이로 보아 III기 초기에는 왕비 및 왕모의 칭호가 ‘내례부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III기의 내례부인의 위상이 이전과 달라지고 있음이 감지된다. 왕비 및 왕모의 칭호인 ‘내례부인’이 점차 세주로 기록되거나 아예 기록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대신 보반부인, 선혜부인, 연제부인 등의 명칭이 전면에 기록되거나, 다만 미추왕의 딸, 실성왕의 딸, 서불한 미사흔의 딸, 이별찬 내숙의 딸 등으로만 기록되고 있다. ‘내례부인’이 가지던 직제적 성격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III기에서는 ‘ar’계를 계승한 ‘내례부인’의 칭호보다 ‘내례’라는 수식이 덧붙여진 ‘부인’이라는 점에 방점이 두어졌던 것으로 여겨진다. 즉 III기에서 ‘ar’계의 사제적 직능의 계승이라는 본래적 의미는 탈각된 채 ‘내례’의 문자적 의미, ‘내례’라는 ‘부인’이라는 의미로 전화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궁내의 위계적 질서를 관장하는’ 역할로서의 ‘내례(內禮)’를 주관하는 ‘부인’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¹¹⁵⁾ 눌지마립간의 모인 보

112) 『三國史記』 권3, 新羅本紀3 訥祗麻立干 즉위조

113) 『三國遺事』 권1, 王曆1 第十九訥祗麻立干

114) 실성니사금의 딸이자 눌지마립간의 妻, 자비마립간의 母는 阿留夫人(『三國遺事』 권1, 王曆1 第十八 實聖麻立干) 또는 阿老夫人[혹은 次老夫人(『三國遺事』 권1, 王曆1 第二十 慈悲麻立干)]이라 한다. 이에 대해 왕실 여성으로서 ‘ar’계 이름을 가지는 사례가 이후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있다(이현주, 2008 앞의 논문, 127~128쪽). 이후 왕실 여성이 가지고 있던 사제적 성격의 소멸이라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반부인은 기왕의 'ar'계 여성의 신성성을 계승하는 한편 '내례부인'으로서의 역할을 자임했던 것이다. 눌지마립간대 이후 왕실 여성의 명칭으로서 'ar'계 칭호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이후 점차 '내례부인'의 사제적 성격은 탈각되고, 궁내의 위계질서 담당자로서의 '내례'의 역할만이 강조되는 경향을 보였으리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맺음말

신라 상고 시기의 여성 칭호를 분석함으로써 지위와 역할의 변화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신라에서의 여성 칭호는 다음과 같이 3기로 변화되고 있다. I기는 '부인' 칭호가 수용되기 전으로 'ar'계 명칭 자체가 칭호로서 쓰였다. 사료에서 '부인' 칭호가 등장하고는 있으나 이는 당대에 쓰인 것이 아니라 후대의 부인 칭호가 소급된 것으로 보인다. 'ar'계 칭호는 존칭으로써 특정 역할과 지위에 있는 인물들에게 쓰였다. 그 대상은 주로 왕모, 왕비, 왕매, 왕녀 등 사제적 직위를 담당한 자들에 한정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왕을 비롯한 왕가의 여성들은 일군의 신성 가족으로서 종교적 역할과 그에 따른 위상을 가지고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II기는 이른 바 니사금기이다. 이 시기 여성 칭호의 특징은 한자식 명칭과 夫人의 칭호에 대한 기록이 정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시기 왕실 여성들의 기록에는 성씨와 부의 명칭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

115) 마운령비에 喙部 伊干 內夫智와 적성비에 喙部 大阿干支 內禮夫智라는 인물이 나오고 있다. 이들이 동일인물인지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이름으로 쓰인 '內'와 '內禮'의 명칭은 주목된다. 이는 그들이 맡고 있는 직임, 담당한 역할과 관련되었을 것이라 짐작된다. 다만 '夫智'는 남성 이름에 붙는 어미이다. 이 '내례'라는 역할이 남성 직업화되었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으로써 왕과 다른 소속임을 부계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 시기에는 점차 ‘부인’ 칭호가 원래적 의미로서의 부인, 즉 배우자와 관련된 기혼 여성에 대한 존칭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I기의 여성들이 신성한 존재로서 추앙되던 존재였는데 반해 II기의 여성들은 사제적 직능 자체가 보다 부각되는 경향을 보인다. 즉 왕모 및 왕비의 지위와 위상이 ‘내례부인’이라는 칭호로 점차 직제화되어 가는 양상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른바 마립간기인 III기에서는 ‘부인’이라는 칭호 외에 ‘국대부인’ ‘미해공부인’, ‘궁주’ 등의 칭호가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된다. 여기서 두 가지를 확인 할 수 있다. 하나는 직계 왕실 여성이 아님에도 ‘부인’의 칭호가 주어졌다는 점, 다른 하나는 남편의 지위에 따른 칭호로서 ‘부인’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부인’ 칭호가 서열화된 위계질서 하의 지위를 표상하게 되었음을 알려준다. 아울러 마립간기 말에 이르면 기혼 여성에 대한 칭호인 ‘부인’ 계열이 아닌 기혼 여부와 상관없는 경제적 의미를 담은 ‘궁주’ 칭호가 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마립간기의 고구려를 통한 한문화의 수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II기에 눌지마립간의 모인 내례부인과 처인 아류부인 이후로 ‘ar’계 칭호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이후 점차 ‘내례부인’의 사제적 성격은 탈각되고, 궁내의 위계질서 담당자로서의 ‘내례’의 역할만이 강조되는 경향을 보였으리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투고일자 : 2012. 7. 23. 심사일자 : 2012. 8. 7. 게재확정일자 : 2012. 8. 30.
주 제 어 : 알영, 부인, 왕비, 왕모, 왕녀

참고문헌

- 金正基 外, 1985 『皇南大塚(北墳)發掘報告書』, 文化財研究所
- 金瑛河, 2002 『韓國古代社會의 軍事와 政治』,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院
- 나희라, 2003 『신라의 국가제사』, 지식산업사
- 李基白, 1974 『新羅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 李鐘旭, 1980 『新羅上代王位繼承研究』, 嶺南大學校出版部
- 千寬宇, 1989 『古朝鮮史·三韓史研究』, 一潮閣
- 崔秉鉉, 1992 『新羅古墳研究』, 一志社
- 崔淑卿·河炫綱, 1972 『韓國女性史(古代~朝鮮)』, 이화여대출판부
- 今西龍, 1933 『新羅史研究』, 國書刊行會
- 末松保和, 1954 『新羅史의 諸問題』, 東洋文庫
- 三品彰英, 1975 『古代祭政と穀靈信仰』, 平凡社
- 姜美卿, 1982 「韓國 古代社會의 女性-三國時代 女性의 社會活動과 그 地位를 중심으로-」 『淑大史論』 11·12합
- _____, 2005 「신라 上代시기의 女司祭-女巫와 比丘尼의 역할을 중심으로-」 『여성과 역사』 2
- 金杜珍, 1994 「韓國 古代 女性의 地位」 『한국사시민강좌』 15, 일조각
- 金哲竣, 1975 「新羅上古世系와 그 紀年」 『韓國古代社會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선주, 2010 「신라의 알영 전승 의미와 시조묘」 『역사와 현실』 76
- 김선주, 2011 「신라의 건국신화와 關英」 『新羅史學報』 23
- 김선주, 2010 「『三國史記』를 통해 본 고대 삼국의 왕비 비교」 『페미니즘연구』 10
- 김영하, 2012 「廣開土大王陵碑의 정복기사해석」 『韓國古代史研究』 66
- 김창현, 2009 「신라왕실과 고려왕실의 칭호」 『韓國古代史研究』 55
- 金台植, 2003 「射琴匣 설화의 역사적 이해」 『민속학연구』 12, 국립민속박물관
- 盧重國, 2012 「百濟의 王·侯號, 將軍號制와 그 運營」 『百濟研究』 55
- 辛鐘遠, 1987 「新羅 五臺山史蹟과 聖德王의 卽位背景」 『崔永禧先生華甲紀念 韓國史學論叢』, 探求堂
- 魏 英, 2002 「신라 初傳佛敎의 展開過程 檢討」 『新羅文化』 20

- 李健茂, 1992 「茶戶里遺蹟出土 붓(筆)에 대하여」 『考古學誌』 4
李基東, 1972 「新羅 奈勿王系の 血緣意識」 『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郎徒』, 一潮閣
이순근, 1980 「新羅時代 姓氏 取得과 그 意味」 『韓國史論』 6
이현주, 2008 「新羅 上古期 王妃族의 등장과 추이」 『史林』 31
전호태, 1997 「한국 고대의 여성」 『韓國古代史研究』 12
崔光植, 1981 「三國史記 所載 老嫗의 性格」 『史叢』 25
하일식, 2009 「포항중성리신라비와 신라 관등제」 『한국고대사연구』 56

<Abstract>

The Reception of the "Bu'in(夫人)" Title in the Far Ancient Period of Shilla, and its Meaning

Lee, Hyun-ju

Analyzed in this article, are the “female titles” that appeared in the Korean ancient periods, in order to examine the changes in their roles and their statuses. In Shilla, the female titles displayed a development that continued through three different stages.

In the first period, the title of 'Bu'in/夫人(Madame)' was not yet employed, and the 'ar'-type titles were used instead. The 'Bu'in' titles did appear in historical records describing this time period, but in fact they were never actually used back then, and were only added to the texts in subsequent periods. The 'ar'-type titles were honorific titles and were only used in cases of referring to persons in specific roles and special positions, in other words a limited group of people, such as the mothers of the king, wives of the king, sisters of the king, and daughters of the king, who all assumed the role of a high priest. Females in the Royal family were considered as divine figures, and seem to have had a specific religious role and a status that accompanied it.

Then in the 2nd period, which is also called as the "Nisa'geum period," Chinese-type female titles began to appear, and female titles became more fixed and officialized. Also, records of the titles of the royal family's female members tended to reveal their last names and the names of their fathers. Through such titles they were presented as figures who came from heritages different from the king's, in terms of their paternal lineages. In the meantime, during this period the previous 'Bu'in' title became an honorific title for the 'married females' in general. And while the females from the first period had been considered divine and were essentially 'worshipped' figures, the females of the 2nd period were presented more prominently with their roles as high priests. The titles for the mothers and wives of the king were officialized as 'Nae'rye Bu'in.'

And in the final and third period, which we now call the "Ma'rib-gan period," titles other than the 'Bu'in' title, such as 'Guk'dae Bu'in,' 'Mi'hae-gong Bu'in,' and 'Gung'ju,' began to appear. We can see two things from such newly appeared diversity in titles. The 'Bu'in' titles were provided to not only the direct female descendants of the royal family, but also to more ordinary figures,

and the 'Bu'in' titles were used according to the rank of the male married to the female in question. This means that the 'Bu'in' title came to signify the females' new statuses placed inside a well organized hierarchy structure. Also, nearing the end of the Ma'rib-gan period, a new title 'Gung'ju,' which was rather a title based upon one's 'economic' background and had nothing to do with the fact that one was married or not, was used to refer to the females. This seems to have been triggered by the adoption of the Chinese culture, which proceeded through Goguryeo during the Ma'rib-gan period. The 'ar'-type titles no longer appeared, after the appearances of Nulji Ma'rib-gan's mother 'Nae'rye Bu'in' and his wife 'A'ryu Bu'in,' Later, Nae'rye Bu'in's nature as a high priest significantly weakened, and only the function as a domestic(palace) manager of ritual rights("內禮Internal ritual protocols") seems to have remained.

Key words : Ar-yeong(AI-yeong), "Bu'in," Queen, Mother of the King, Royal sister(or Princess)